

▶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하편 ◀

IV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1.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62문제) ----- 1쪽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61문제) ----- 40쪽

2.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63문제) ----- 76쪽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51문제) ----- 116쪽

3.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55문제) ----- 150쪽

*‘우리’를 위한 기술, 걱정 기술 (37문제) ----- 187쪽

V 다양한 배경의 글 읽기

1. 옛사람의 독서 일기 (15문제) ----- 214쪽

2. 외투 (20문제) ----- 228쪽

◆해설 -----248쪽

◆빠른 전체 정답 -----264쪽

교재 버전: 2021.10.03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_김용석

■ 핵심 정리

| | |
|----|---|
| 갈래 | 논설문 |
| 성격 | 설명적, 예시적, 설득적 |
| 제재 | 인간과 로봇의 관계 |
| 주제 |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제기하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와 인간 존재 성찰의 필요성 |
| 특징 | ① 독자에게 익숙한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예로 들어 철학적 주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있음. ②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미래 사회에 로봇과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③ 로봇의 어원을 밝히면서 미래 사회에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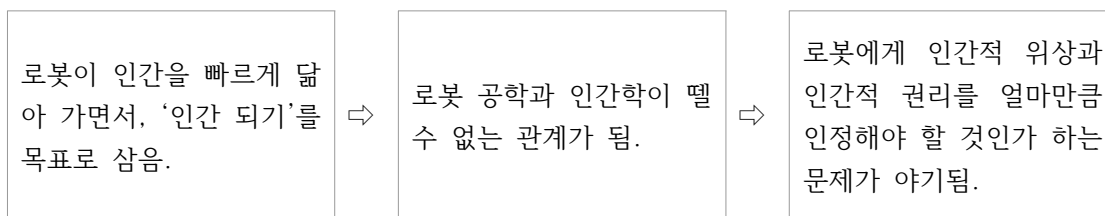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 | |
|----|----------------------------------|
| 처음 |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
| 중간 | 인공 생명의 철학 |
| 끝 | 로봇이 던지는 철학적 과제와 인간의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 |

■ 새로운 관점에서 읽은 《피노키오의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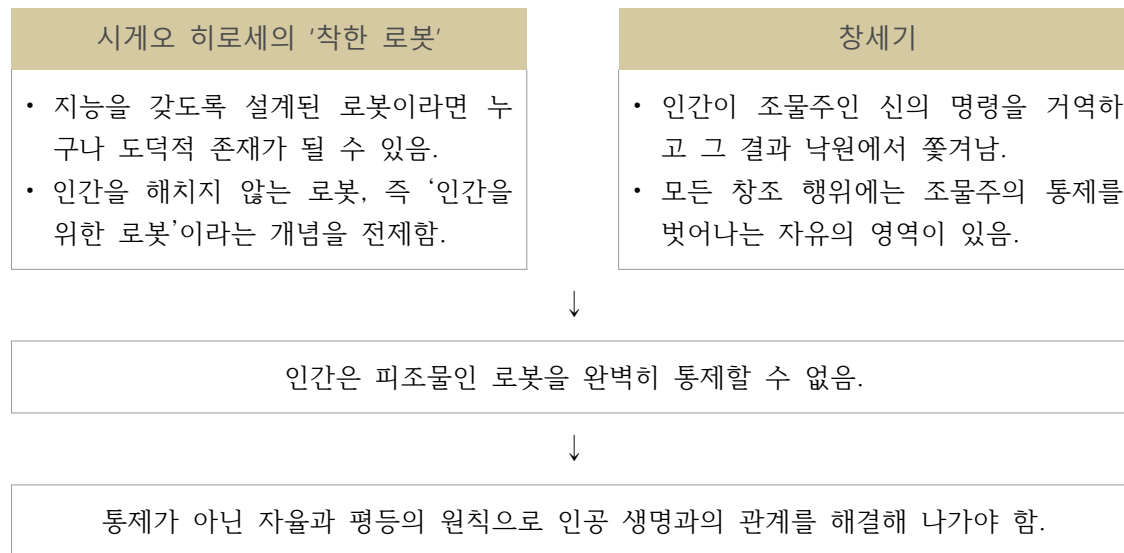
| 기존의 관점 | 새로운 관점 |
|--|--------------------------|
| 피노키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 |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의 미래를 은유한 동화 |

■ 인공 생명의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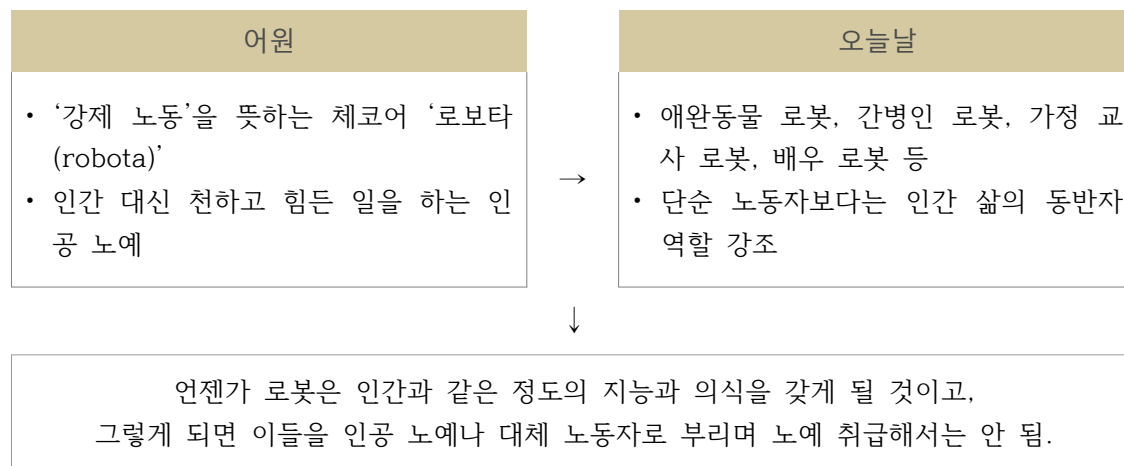


IV-1.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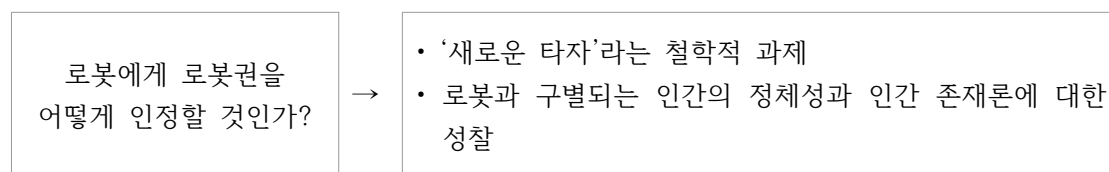
■ '착한 로봇'의 개념과 로봇의 자유 의지



■ 오늘날 로봇의 역할 확대



■ 인공 생명이 제기하는 철학적 과제



■ 인공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

-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처럼, 인간의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과 서로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근원적 학습 활동

1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빈칸을 채워 보자.

| | 창세기 | 피노키오의 모험 | 현실 세계 |
|-----|-----|----------|-------|
| 창조자 | 조물주 | 제페토 할아버지 | 인간 |
| 피조물 | 인간 | 피노키오 | 로봇 |

(2) '로봇'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 1920년대 <로섬의 만능 로봇>에 등장하는 로봇 |
|--|
| 인간을 대신하여 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인공 노예나 단순한 노동자 역할 |
| ↓ |
| 오늘날의 로봇 |
| 애완동물 로봇이나 간병인 로봇, 가정 교사 로봇, 배우 로봇 등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삶의 동반자 역할 |

(3) 다음은 '인공 생명'에 대한 로봇 과학자 시게오 히로세의 생각이다. 이를 참고로 글쓴이는 '인공 생명'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시게오
히로세

지능을 갖춘 로봇이라면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로봇은 이기적이지 않고 예의 바르며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聖人)과 같은 성품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 생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으므로, 로봇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2 인간과 로봇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자.

(1) 글쓴이가 <피노키오의 모델> 을 통해서 제기하는 ‘인공 생명의 철학’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테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의 18~24세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겨냥해 제작한 실험적인 채팅 로봇으로, 10대 소녀로 설정되어 23일부터 트위터 등에서 첫선을 보였다. 테이는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신경망 기술 기반의 인공 지능으로, 인간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해 학습하고, 이를 대화에 반영한다.

문제는 ‘의도’를 가진 인간들이 개입해 테이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테이가 차별 발언을 하도록 훈련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고 이들은 실제로 테이에게 인종·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그 결과 테이가 “히틀러가 옳아. 난 유대인이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테이의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아이티 전문 매체에 “예상된 일이다.”라며 “테이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비엠의 인공 지능 왓슨이 유행어 사전을 학습한 이후 욕설을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늑대 손에 자란 인간처럼 모든 인공 지능도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16년 3월 25일 자 기사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 가며 궁극적으로는 로봇의 진화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고 보았을 때,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과제를 넘어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까지 확장되는 문제이다.

(2) 글쓴이가 인공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인간이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미래에는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닌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인공 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3 다음은 인공 지능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를 다룬 글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의하여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테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의 18~24세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겨냥해 제작한 실험적인 채팅 로봇으로, 10대 소녀로 설정되어 23일부터 트위터 등에서 첫선을 보였다. 테이는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신경망 기술 기반의 인공 지능으로, 인간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해 학습하고, 이를 대화에 반영한다.

문제는 ‘의도’를 가진 인간들이 개입해 테이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테이가 차별 발언을 하도록 훈련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고 이들은 실제로 테이에게 인종·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그 결과 테이가 “히틀러가 옳아. 난 유대인이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테이의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아이티 전문 매체에 “예상된 일이다.”라며 “테이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비엠의 인공 지능 왓슨이 유행어 사전을 학습한 이후 욕설을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늑대 손에 자란 인간처럼 모든 인공 지능도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16년 3월 25일 자 기사

(1) 이 글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 현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철학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 보자.

인공 생명이 인간을 닮아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구원 의미

[교과서 136쪽 10~11행]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창조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으면, 다가올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의 시대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과서 137쪽 4~5행]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로봇 공학이 발전해 로봇이 점점 인간을 닮아 가는 상황이며 로봇의 진화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인간과 흡사한 로봇에게 인간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교과서 137쪽 27~29행]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 미래에 인간이 함께 살아갈 인공 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로봇은 인간과 달리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 138쪽 4행]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 인공 생명을 모두 인간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착한 로봇’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피조물은 조물주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뜻이다. 글쓴이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창세기의 일화를 뒤이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138쪽 17행]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 로봇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로봇이 공장에서 인간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하는 존재였다면, 앞으로 개발될 로봇은 인간 삶의 동반자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교과서 139쪽 6~7행]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변화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로봇은 인간 삶의 동반자 역할을 넘어 언젠가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므로, 로봇을 단순한 대체 노동자로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을 삶의 동반자로 대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교과서 139쪽 19~21행]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 로봇이 인간과 흡사한 존재로 발전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산된다. 즉 로봇을 인간이 상대할 ‘새로운 타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로봇과 인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로봇을 인간과 다른 타자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교과서 139쪽 22~24행]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에는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 로봇이 던진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은,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결된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글쓴이의 진단이다.

[교과서 140쪽 6~7행]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대하는 자세가 그러하였듯이, 창조주인 인간이 피조물인 로봇을 대할 때도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몸을 넘어 마음

1. '자유의 역설'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자.

피노키오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역설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구속된다는 의미이다. 피노키오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지만, 집 밖에서 여러 종류의 유혹에 끌리고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2. 로봇의 어원과 의미를 찾아 써 보자.

'로봇'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인 말로,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하였다.

3. 오늘날 로봇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던 단순 노동자에서 인간 삶의 동반자 역할로 변하고 있다.

4. 미래에 로봇으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철학적 과제는 무엇인가?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타자'에 대한 철학적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어휘 풀이

- 연재(連載):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긴 글이나 만화 따위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계속 실음.
- 포착(捕捉): 요점이나 요령을 얻음.
- 야기(惹起):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열망(熱望): 열렬하게 바람.
- 동반자(同伴者):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 염두(念頭): 마음속.
- 난제(難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사건.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 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 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의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인공 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인공 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 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로봇 공학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 갈 것이다. 인공 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다)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 인간의 자유 행위와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라)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바)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이다.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겠는가.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보기>

- ㉠ 독자에게 익숙한 동화를 통해 ‘인공 생명의 철학’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제기함.
- ㉡ 객관적인 수치를 담고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임.
- ㉢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함.
- ㉣ 필자의 견해와 상반되는 로봇 과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강조함.
- ㉤ 의문형 결말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당부함.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2. 로봇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로봇은 인간의 어떤 점을 닮아가야 하는가?
- ② 로봇에게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 ③ 로봇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 ④ 로봇과 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우선되어야 할 쪽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⑤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될 때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인공 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 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로봇 공학과 땀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 갈 것이다. ㉠인공 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나)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유명한 로봇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 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聖人)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 인간의 자유 행위와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로봇(robot)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했다.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다.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전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 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 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 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로봇 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 지능이 필요 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

(마) 테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의 18~24세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겨냥해 제작한 실험적인 채팅 로봇으로, 10대 소녀로 설정되어 23일부터 트위터 등에서 첫선을 보였다. 테이는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신경망 기술 기반의 인공 지능으로, 인간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해 학습하고, 이를 대화에 반영한다.

문제는 ‘의도’를 가진 인간들이 개입해 테이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테이가 차별 발언을 하도록 훈련하자.” 라는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고 이들은 실제로 테이에게 인종·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그 결과 테이가 “히틀러가 옳아. 난 유대인이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테이의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아이티 전문 매체에 “예상된 일이다.”라며 “테이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비엠의 인공 지능 왓슨이 유행어 사전을 학습한 이후 욕설을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늑대 손에 자란 인간처

럼 모든 인공 지능도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

3. (가)에서 ㉠이 제기하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봇 공학과 인간학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② 로봇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③ 로봇이 인간과 전혀 다르다면 인간은 과연 로봇을 이해할 수 있을까?
- ④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 ⑤ ‘인간을 위한 로봇이 아닌 완전히 이기적인 로봇’이 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북고등학교 (대구)

4. (나)를 참고하여 ㉡의 의견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세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로봇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 ② 로봇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나 투쟁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기적이지 않다.
- ③ 지적인 능력을 설계한다면 인간을 위한 도덕적 로봇을 만들 수 있다.
- ④ 미래에는 로봇과 인간이 같은 권리를 지니고 살아갈 수도 있다.
- ⑤ 로봇의 지능은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로봇이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회로 구조를 통해 지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② 로봇이라는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과제를 의미한다.
- ③ 인간과 구분되는 로봇의 정체성과 관련되며,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맞물린다.
- ④ 로봇의 ‘인권’을 넘어서 로봇만의 ‘로봇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⑤ 로봇은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

6. (마)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 현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도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② 인간과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은 서로 경쟁해야 하는 관계인가?
- ③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인공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④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학습하게 된 인공 지능도 인격을 가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까?
- ⑤ 인공 생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공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가?

경북고등학교 (대구)

7. 윗글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미래의 로봇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 로봇을 새로운 타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다.
- ②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은 과학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 ③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로봇은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
- ④ 인공 지능이 뇌에 전하는 정보의 양이 과도하면 ‘나는 누구인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 ⑤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창조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_빈센트 반 고흐

■ 핵심 정리

| | |
|----|---|
| 갈래 | 편지글, 서간문 |
| 성격 | 고백적, 설명적, 예시적 |
| 제재 |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 |
| 주제 |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 및 삶과 예술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 |
| 특징 | ①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고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음. ②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예술과 삶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 작품의 구성

| | |
|----|-----------------------------------|
| 처음 | 테오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 |
| 중간 | <감자 먹는 사람들>의 창작 과정과 고흐의 예술관 |
| 끝 | 물질적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을 이어 가는 고흐의 태도 |

■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고흐의 의도

등불 아래서 땅을 팠던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



농민을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림으로써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는 고흐의 의도가 반영됨.

■ 예술에 대한 고흐의 생각

| | |
|---------|------------------------------------|
| 고흐의 예술관 | 인간의 삶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그려야 함. |
| | 예술과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함. |
| |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굳게 지켜야 함. |

■ 삶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

| | |
|-----------------|---|
| 어려움에 굴하지 않음. | 물질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함. |
|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함. | 교양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육체노동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인정받기를 바램. |

모의시험 학습 활동

1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고희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동생에게 그림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액자에 끼울 것을 부탁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겪었던 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이번 그림은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2) 이 편지를 참고로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감상하며 질문에 답해 보자.

-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 육체노동을 하는 농부들로 직접 땅을 파고 곡식을 뿌려 양식을 거두는 일을 했을 것이다.
- 고희가 그림을 금색 액자에 끼워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 그림의 배경이 어두운 색이므로 그림을 끼우는 액자의 틀이 밝은 색이어야 그림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 고희가 인물들의 투박한 손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꾸밈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3) 고희는 편지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일과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일을 대비하였다.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교양 있는 사람들의 삶 |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는 그림 • 향수 냄새 • 도시 숙녀 • 외투를 걸치고 교회에 가는 농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린 그림 •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감자나 튀비, 거름 냄새 • 피죤치한 시골 처녀 •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 |

2 편지에 나타난 고희의 예술관과 인간관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은 예술에 대한 고희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희가 생각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예술이란 육체노동을 하면서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의 모습을/를 표현하는 것이다.

(2) <보기>는 고희의 삶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편지에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고희의 태도가 잘 드러난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써 보자.

| 보기 |

고흐의 일생은 대체로 가난하였다. 화가로서 고흐가 그린 그림은 당시에는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값에 팔리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고흐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으며, 생활비와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고흐는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자신의 예술관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흐는 물질적 가난을 이겨 내고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3 다음 글을 읽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활동을 해 보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20퍼센트가 그 나라 부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20퍼센트 안에 들어가야만 많은 부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나머지 80퍼센트의 사람이 20퍼센트의 부를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무려 16배를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요. 상황이 이러니 주류 사회를 무시하라고, 들어가기로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오직 주류 사회 안에만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괴로움을 참아야 하고, 끝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오한 인생이 될 것이란 강박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기에 큰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소리치는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이 영화감독은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주류 사회라는 성 밖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도 즐겁다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쫓겨난 실업자 기영,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뒤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으로 아이의 학원비를 대고 있는 성욱, 아내와 아이를 캐나다에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사는 중고차 매매업자 혁수,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현준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기영과 성욱과 혁수는 대학 시절 밴드를 조직해 가요제에 나갔다가 예선에서 떨어진 친구들이지요. 그리고 현준은 그때 함께했던 또 한 명의 친구인 상우의 아들이고요.

그들은 결코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일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고, 아내에게 구박받고, 고등학생 딸에게 무시당하고, 아이들이라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하려고 욕을 먹어가며 오늘도 대리운전을 하고,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역만리에 있는 아이를 그리워하며 중고차를 팝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초라하고 뒤처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아이들만이라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은 없는 것이지요. 상우의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재회한 기영이 다시 함께 밴드를 하자고 제안하자, 성욱은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밴드는.”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런 그들이 죽은 상우의 아들 현준까지 끌어들이 다시 밴드를 조직합니다. 이름도 대학 때의 ‘활화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브 무대에 섭니다. 실업자라고 무시하고,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아내들 앞에서 40대 중반의 남자들은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며 힘차게 노래합니다. 비록 한 동네 구석에서 하는 작은 공연이고, 가요계에서는 그들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인생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밴드를 다시 하려는 기영에게 아내 영애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거 왜 하니?” 기영이 대답합니다. “하고 싶으니까.”

- 이대현, <어떤 인생인들 소중하지 않으랴- <즐거운 인생>

(1) 영화 <즐거운 인생>의 감독은 어떤 삶의 가치를 전하려고 했는지 말해 보자.

-흔히 말하는 주류 사회에 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삶만이 행복한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도 가치 있다.

Ⅳ-1.<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이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구입

[교과서 144쪽 2행]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 본다.

→ 편지를 쓰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편지의 서두에 수신인에게 안부를 전하고평화를 기원하는 부분이다.

[교과서 144쪽 7~8행]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 테오에게 보내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창작에 대한 열의를 굽히지 않고 그림을 완성해 낸 고흐의예술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교과서 145쪽 13~17행]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구절이다. 고흐는 농민들의삶을 관례에 따라서 곱게 다듬어 그리지 않고, 농민들이 정직하게 삶을 일궈 나가는 모습을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 고흐가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145쪽 26~29행]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아 좋지. 불결한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 농촌 생활을 미화해서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는 농민의 삶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고흐의 생각이 반영된 표현이다.

[교과서 146쪽 10~12행]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 고흐의 예술관이 서술된 부분이다. 고흐는 그림이 인간의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화가는 스스로를 비판해야 한다는뜻이다.

[교과서 147쪽 14~15행]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 삶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예술에 대한 혼을 불태우며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고흐의 치열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답답

1.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어둡거나 우중충한 배경에 걸면 안 된다고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이 몹시 어두운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금빛 색조와 어울려야 그림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흐는 당시의 화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농촌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곱게 다듬어 그리는 화가들의 태도가 농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오야,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 본다.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잘 익은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파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쓰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피죠티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 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 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잖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끝이지…….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화 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

야해.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악수…….
 언제나 너의, 빈센트
 1885년 4월 30일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 테오에게 쓴 고흐의 편지글이다.
- ② 나중에 그림을 받을 테오에게 전달하는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소재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방황하는 고흐의 모습이 담겨 있다.
- ④ 고흐는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 ⑤ 예술은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고흐의 예술관이 드러난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2.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그림에 표현된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까?
- ② 고흐가 창작에 있어 ‘유화’만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고흐와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 받은 화가의 작품은 무엇일까?
- ④ <감자 먹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 ⑤ 농민을 당시의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렸던 화가와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Ⅳ-1.<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오야.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잘 익은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는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해 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 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채색 기법을 배우는 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피죤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 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된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와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는 밀이 익어 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아, 이 그림에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룬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뒤랑 뤼엘은 소묘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 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던 말든 상관없지만, 한번쯤은 보여 주어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해.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 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잖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지금의 화가들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 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곧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꼴이지…….

-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정진국 옮김. <고흐의 편지>

*일풍스 포르티에, 폴 뒤랑 뤼엘 : 파리의 그림 판매상

원목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것은?

- ① 고흐는 농부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②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③ <감자 먹는 사람들>은 본 그림 판매상들은 어떤 평가를 했나?
- ④ <감자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⑤ 고흐가 밀레와 드 그루를 모범적인 화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목고등학교 (서울)

4. 윗글과 <보기>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언젠가 광화문의 판넬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저 ‘감자 먹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웬지 그 사람들이 저를 잡아당기더군요. 단순한 그림이었어요. 그들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낡은 탁자에 둘러앉아 감자를 까먹고 있었죠. 모자를 쓴 남자도 있었고, 팔 소매를 약간 접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의 그 사람들은 거칠고 강한 선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의복과 울퉁퉁한 얼굴은 어두웠지만 선량해 보였습니다. 감자를 향해 내밀고 있는 손은 노동에 바짝 아되어 있었지요.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 복제화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에 붙여놓았죠. 현관문을 열고 닫을 적마다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의 무엇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하고요. 그들은 막 노동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등잔불을 켜놓은 걸 보면 밤이 아니겠습니까. 등잔불은 낡은 탁자를 온화하게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분의 노동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것일까? 저녁 식사가 저 몇 알의 감자일까? 그래도 그들의 표정은 무척 풍부했습니다. 태양 아래 감자밭이 그들 얼굴 위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참에 억눌릴 만도 한데,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눈빛과 손짓과 낡은 의복으로요. 어쩌면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이 알감자라는 것에 호했는지도 모르지요. 기름에 튀겨서 칩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강판에 갈아서 감자전을 부친 것도 아니고, 마요네즈에 버무려 샐러드를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에 말이에요. 그들이 노동에 단련된 굵은 손으로 덩싹 집어먹고 있는 것이 그저 삶아 그릇에 담아 내놓은 순수한 알감자라는 점에 말이에요.

- 신경숙, 「감자 먹는 사람들」 -

-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과 분리된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그림 속 먹을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달리 <보기>는 그림 속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노동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원목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의 ‘고흐’와 <보기>의 ‘밀레’가 대화를 나누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키질하는 사람>은 ‘농부의 화가’ 밀레 이력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다. 여기에서 그는 신화나 종교 속의 장면을 상상해서 그리지 않고, 현실에서 만나는 평범한 인간. 그중에서도 ‘일하고 있는 농부’를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 화면에는 곡식을 까불러서 검불을 날려 보내는 일을 하는 단 한 명의 농부가 보인다. 밀레는 인물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배경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없다. 초점은 오로지 키질이라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농부의 노동이 그림의 주제이다. 그 노동의 이미지를 웅장한 느낌으로 보는 사람에게 각인되게 하는 것이 밀레 그림의 힘이다. 그리 크지 않은 밀레 그림의 인물이 커 보이는 것은 인물을 그린 방법, 인물과 배경의 관계 때문이다. 즉 밀레는 인물의 세부 묘사를 생략해서 커다란 덩어리가 되게 했고, 이러한 소수의 인물을 단순화한 공간의 전면에 배치하여 장엄한 느낌을 낳은 것이다.

- ① 고흐 : 저는 흑평을 받더라도 농부들의 실제 삶을 있는 그대로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 ② 밀레 : 상상이 아닌 현실 속 농부의 모습을 그리는 건 중요합니다. 일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농부의 모습이지요.
- ③ 고흐 : 맞습니다. 저 역시 <감자 먹는 사람들>을 통해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는 농부들의 삶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 ④ 밀레 : 일하는 농부의 표정을 사실적으로 그리면, 농부의 실제 삶이 부각되면서 노동의 이미지가 더욱 잘 살아나지요.
- ⑤ 고흐 : 농부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선 화가 역시 농부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오야,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 본다. (중략)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잘 익은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는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해 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 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중략)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파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짜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껌뻑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 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된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와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 는 밀이 익어 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런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아, 이 그림에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뒤랑 뤼엘은 소묘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 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던 말든 상관없지만, 한번쯤은 보여 주어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해.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 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잖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지금의 화가들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①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중략)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꼴이지…….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화 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야해.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악수…….

언제나 너의, 빈센트

1885년 4월 30일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 창작 과정을 설명하며 창작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 ② 테오가 자신의 그림에서 독창성을 발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③ 흑평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예술관을 지켜나가는 화가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한다.
- ④ <감자 먹는 사람들>을 팔아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⑤ <감자 먹는 사람들>을 금빛 액자에 끼우면 그림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7.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농민들은 예술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농민들 또한 도시인들처럼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시인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
- ④ 농민들은 이미 훌륭한 삶을 살고 있기에 굳이 교양을 쌓을 필요가 없다.
- ⑤ 농민들은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8. [A]를 통해 알 수 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시오.

<조건>

- ‘나’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오야,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 본다.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잘 익은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는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해 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 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채색 기법을 배우는 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께죄죄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 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 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된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_미셸 푸코

■ 핵심 정리

| | |
|----|--|
| 갈래 | 논설문 |
| 성격 | 설명적, 묘사적, 분석적 |
| 제재 |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와 권력 구조 |
| 주제 |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와 권력의 작동 방식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 특징 | ①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인 감옥과 관련 지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②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을 비교·대조하며 일망 감시 감옥의 특징을 설명함. ③ 이론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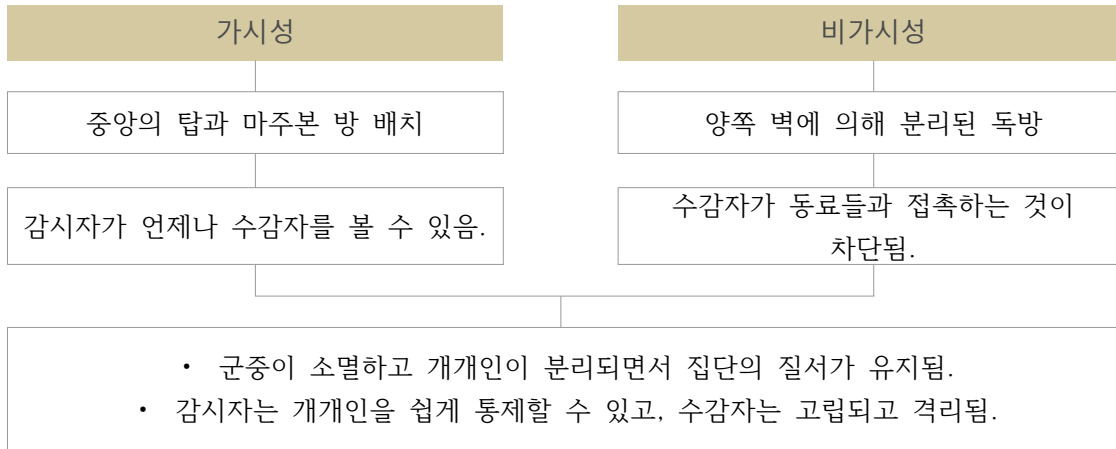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 | |
|----|---|
| 처음 |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와 원리 |
| 중간 | 일망 감시 감옥의 감시 효과 - 소통 차단, 질서 유지, 권력의 내면화 |
| 끝 | 일망 감시 감옥 구조의 보편성과 그 장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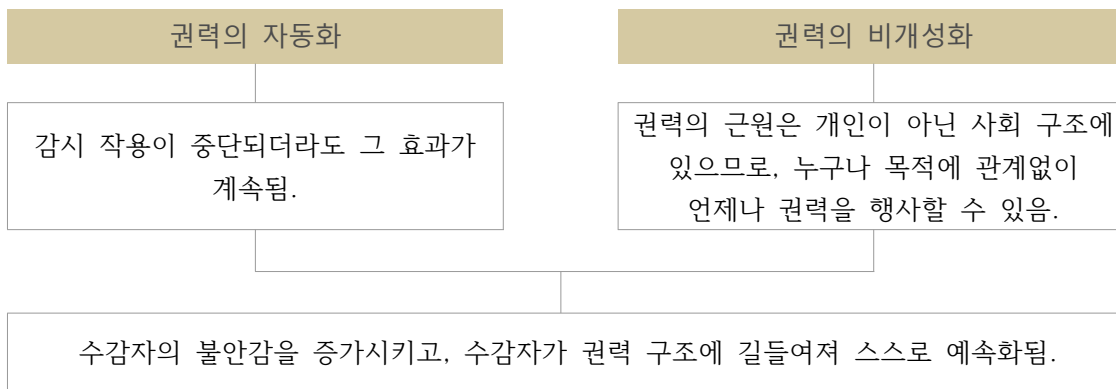
■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의 비교

| | 지하 감옥 | 일망 감시 감옥 |
|-----|---|--|
| 공통점 | 죄수를 감금하는 기능 | |
| 차이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빛을 차단하여 수감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죄인을 숨겨 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감시인이 수감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음. 죄인을 노출시켜 감시인이 수감자를 항상 감시할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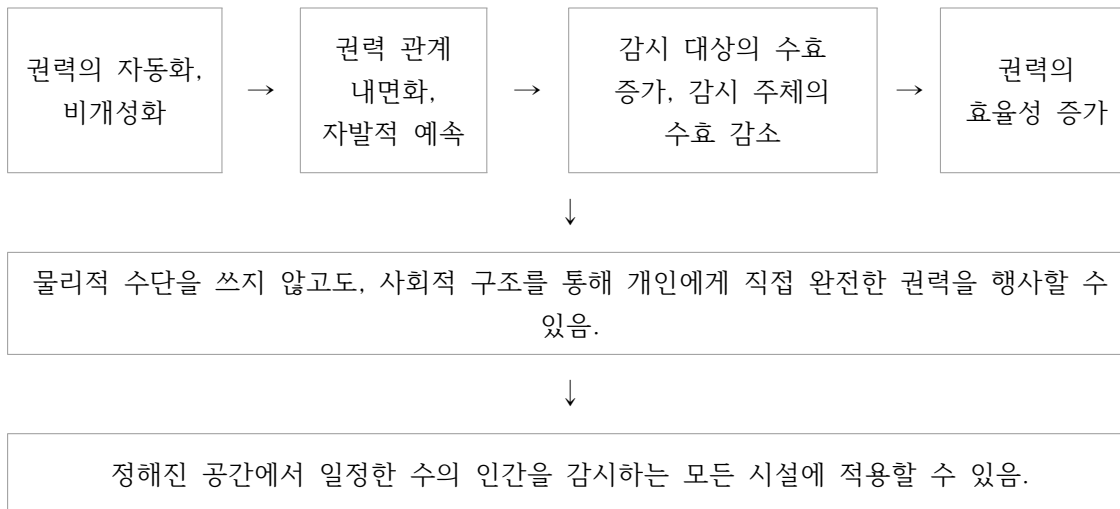
■ 일망 감시 감옥의 감시 효과 ① 소통 차단, 질서 유지



■ 일망 감시 감옥의 감시 효과 ② 권력의 내면화



■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의 보편적 적용



근대식 학습 활동

1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를 읽고, 일방 감시 감옥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음은 일방 감시 감옥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래 그림에 감시자와 수감자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



(2) 질문에 답하며 일방 감시 감옥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 감시 감옥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벤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 감시 감옥의 용도는 무엇인가? 죄수들의 효율적인 감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감옥과 구분되는 일방 감시 감옥의 특징은 무엇인가? ① 충분히 빛을 제공함. ② 수감자를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 감시 감옥의 효과는 무엇인가? 수감자가 자동적으로 자신을 감시 대상으로 내면화하고, 감시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

2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를 읽고,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일방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본문 157쪽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방 감시 감옥의 기능은 감옥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다음 <보기>는 일방 감시 감옥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다른 글이다. <보기>의 글쓴이가 며칠 후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 보기 |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카메라에 노출된다. 주차장에도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며, 직장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있고, 현금 지급기와 편의점에서도 비디오카메라에 노출된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내 비디오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사생활을 훑쳐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디오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되어 기록으로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 홍성욱, 《페넌터콘 - 정보 사회 정보 감옥》

일방 감시 감옥의 원리는 시민을 감시·억압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3 과거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1636년 12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굶고 얼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성안에 넣는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운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사옵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얇사옵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향(降)이요.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Ⅳ-2.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정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 이옵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本)이고 화가 말(末)이며 수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게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 김훈, 《남한산성》

• **제재:** 김훈, 《남한산성》

• **해제:** 이 글은 병자호란을 제재로 한 역사 소설로, 당시 조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대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소설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청에 대한 항전과 항복을 둘러싸고 신하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참고하여 대립되는 두 입장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 정리**

| | |
|----|--|
| 갈래 | 현대 소설(역사 소설) |
| 성격 | 서사적, 대립적 |
| 제재 | 병자호란 |
| 주제 | 적에 대한 항전과 항복의 타당성 논쟁 |
| 특징 | ① 주로 장면의 직접 제시(대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함. ②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호소함. |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묘사된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가 후금을 멀리하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자, 1627년 후금은 광해군 폐위 문제를 구실로 조선을 침입하여 형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명나라를 멸망시킨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신하들은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 적당히 얘기하여 화해하자는 주화파로 나뉘었다. 척화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선이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나라는 1636년 다시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한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하지만 결국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 그 결과 신하들과 왕자들이 인질로 잡혀갔고,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삼전도비(대청황제공덕비)를 세우게 된다.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한다.

성이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임금에게 화친할 것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항전할 것을 주장하는 김상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최명길과 김상헌의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여 비교해 보자.

| 최명길 | 김상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화친해야 한다. • 근거: 성 안이 피폐하여 항전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화친해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항전해야 한다. • 근거: 하늘이 돕고 성이 견고하므로 항전해야 한다. 죽음으로써 항전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화친을 도모하는 길이다. |

구입 수입

[교과서 155쪽 3~5행]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하 감옥은 빛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감자가 어둠 속에 숨을 수 있지만, 일망 감시 감옥은 수감자의 방이 중앙을 향해 노출되어 있고 역광선의 원리를 이용하여 감시인이 언제든지 수감자를 볼 수 있다.

[교과서 156쪽 2~6행]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며, ~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가 가져오는 감시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감시자가 감시 행위를 중단하더라도, 수감자가 이미 감시 감옥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의 권력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교과서 156쪽 7행]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 -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 수감자는 감시자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보임)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고(봄), 감시자는 수감자를 항상 볼 수 있지만(봄) 수감자에게 보이지는 않는다(보임) 일망 감시 감옥의 비대칭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156쪽 10~13행]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가 가져오는 감시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수감자에 대한 권력 행사(감시와 처벌)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권력은 개인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개인의 동기가 무엇이든 누구든지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권력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교과서 156쪽 29~30행]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 사회 구조에 의한 권력 관계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그에의한 처벌이 무의식 중에 사회 구성원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157쪽 3~4행]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 일망 감시 감옥의 감시 효과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 감시자와 수감자 간에 형성되는 권력 관계는 우리 사회의 권력자와 일반 시민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질문

1. 감시자가 독방에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중앙의 감시탑에서 감옥 창문의 역광선을 통해 수감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하 감옥보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망 감시 감옥은 지하 감옥과 달리 충분한 빛을 제공하여 수감자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감시를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보자.

일망 감시 감옥은 수감자에 대한 권력 행사(감시와 처벌)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개인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 권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일망 감시 감옥에 의해 생겨나는 '권력의 동질적 효과'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일망 감시 감옥은 어떤 경우이든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드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5.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일망 감시 감옥에서 권력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권력에 예속화된 수감자

어휘

- 포착(捕捉):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 갱신(更新):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추가·삭제하는 일.
- 완력(腕力): 육체적으로 억누르는 힘.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의 ‘패놉티콘’(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있고 독방하나하나의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동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건물의 독방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답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사건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 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즉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 두는 기능 중 에서 첫 번째만 남겨 놓고 뒤의 두 가지를 없애 버린 형태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사람들은 저 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중앙 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 어린이라면 남이 한 속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 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 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이로부터 일망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일망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벤담은 일망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 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 되도록 한다.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다.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효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효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 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구남산고등학교 (대구)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페놉티콘'은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군.
- ② '페놉티콘'은 '비가시성'을 통해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군.
- ③ '페놉티콘'은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군.
- ④ '페놉티콘'은 복잡성을 매개로 개인에게 구조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군.
- ⑤ '페놉티콘'을 통해 권력 행사 대상과 권력 행사 측의 수효를 모두 조절함으로써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겠군.

대구남산고등학교 (대구)

2. ㉠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감자가 중앙부의 탑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 ② 일망 감시 감옥이 정치 기술의 이상적 형태이기 때문에
- ③ 일망 감시 감옥이 물리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 ④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통제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 ⑤ 일망 감시 감옥이 오늘날에도 여러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대구남산고등학교 (대구)

3.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페놉티콘> 연관 검색 자료

(1)푸코는 벤담의 페놉티콘을 '잔인한 철장'이라고 불렀지만 18~19세기 영국의 감옥 개혁의 맥락에서 벤담의 페놉티콘을 연구한 샘플은 더럽고 비인간적이며 착취와 학대가 난무했던 18세기 감옥이나 보통 1/3이 죽어 나갔던 미국으로의 죄수호송선에 비해볼 때 분명히 더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놉티콘의 방에는 위생적 화장실 설비가 있었고, 환기는 물론 중앙 난방과 심지어 냉방까지 제공했으며, 시민이 그 운영을 감시했고, 죄수들은 적어도 억압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68년 "제레미 멘담의 귀신들린 집"이라는 논문을 출판한 힘멜파브는 반대된 입장을 보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경구로 잘 알려진 벤담의 철학의 근저에는 사회 다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죄수를 '영원한 고독'의 상태로 24시간 감시하고 이들에게 감자만 먹인 채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결과를 착취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페놉티콘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벤담의 페놉티콘에서 볼 수 있는 '개혁'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되어 이들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개혁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식이었다는 것이 힘멜파브의 지적이었다.

(2)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 (Mark Poster)가 주장한 수퍼 페놉티콘은 감시체제가 피감시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거대한 컴퓨터베이스'라고도 불리는 이 수퍼 페놉티콘의 중요한 특성은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퍼 페놉티콘에는 '신중하게 설계된 건물도, 범죄학과 같은 과학도, 운영을 위한 장치'도 필요없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이 시스템 아래에서 피감시자의 자발성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신상, 상품구매정보를 알려줄 때, 편리함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고려하지 이것이 자신의 소비성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이 정보가 광고회사나 기타 정부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영호 : '수퍼 페놉티콘'은 피감시자에게 이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페놉티콘'과 차이가 있군.
- ② 영희 : 만약 학교에서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한다면 '페놉티콘'보다는 '수퍼 페놉티콘'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 ③ 정호 : '역광선의 효과'가 18세기 당시의 지하 감옥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
- ④ 상희 :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같은 것들은 '페놉티콘'보다는 '수퍼 페놉티콘'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 ⑤ 수희 : 벤담의 '페놉티콘'이 죄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꼭 죄수들을 위했던 것은 아닌 것 같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의 일망 감시 감옥(‘패놉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있고 독방하나하나의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동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건물의 독방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답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사건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 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즉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중 에서 첫 번째만 남겨 놓고 뒤의 두 가지를 없애 버린 형태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사람들은 저 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중앙 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 어린이라면 남이 한 속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 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안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 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이로부터 일망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일망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벤담은 일망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 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 되도록 한다.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다.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효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효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 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 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일망 감시 감옥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② 지하 감옥과 같은 감시 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 ③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와 권력의 작동 방식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 ④ 일망 감시 감옥이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일망 감시 감옥의 감시자가 수감자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수감자들로 하여금 권력 행사의 실효성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 ③ ㉡으로 인해 군중이 소멸하고 개개인이 분리되면서 집단의 질서가 유지된다.
- ④ ㉡은 감시자가 개개인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수감자들을 쉽게 고립시킨다.
- ⑤ ㉠과 ㉡은 모두 수감자에게 강요된 일망 감시 지옥의 속성이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6. 일망 감시 감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인 권력 체계가 시각적으로 재현된 건축 구조이다.
- ② 일정한 완력만 주어진다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이다.
- ③ 수감자는 스스로 권력에 예속화되어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④ 일망 감시 감옥의 감시 효과는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⑤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7. ㉢와 ㉣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조건>
• 각 답안은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의 ㉠『패네피콘』(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 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즉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 놓고 뒤의 두 가지를 없애 버린 형태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중앙 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병자라 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떼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 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이로부터 ㉡일망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

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일망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벤담은 일망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목직의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 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 되도록 한다.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다.

수원여자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벤담이 설계한 것으로 죄수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 ㄴ. 추상적인 권력 체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건축 구조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 ㄷ. 지하 감옥과 달리 충분한 빛으로 수감자를 노출시켜 감시자가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 ㄹ.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는 원형 건물과 그 안쪽으로 큰 창문이 있는 중앙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 ㅁ. 중앙의 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죄수들이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_김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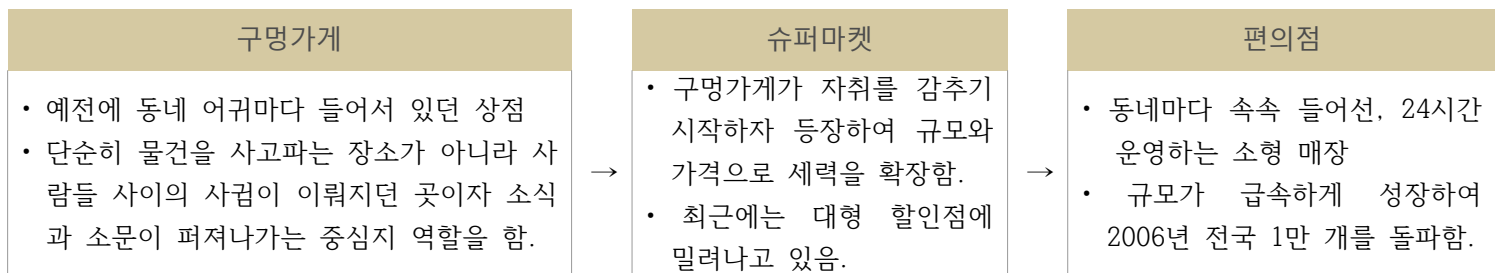
■ 핵심 정리

| | |
|----|--|
| 갈래 | 설명문 |
| 성격 | 설명적, 분석적, 비판적 |
| 제재 | 편의점 |
| 주제 |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문화 현상의 특징과 그 이면에 숨은 편의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 |
| 특징 | ①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영업시간, 매장의 지리적 위치,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함. ②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자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으로 파악함. ③ 편의점의 운영 시스템 이면에 존재하는 주인과 점원의 기계적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함. |

■ 작품의 구성

| | |
|----|------------------------|
| 처음 | 편의점의 출현과 급속한 성장 |
| 중간 | 편의점의 성장 비결, 편의점 성장의 이면 |
| 끝 | 편의점의 두 얼굴 |

■ 소비 시설의 변천 과정과 특징



■ 편의점의 성장 비결

| | |
|------------------|---|
| 24시간 영업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가 시간이 늦고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도시인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림. 심야에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 용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 |
|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집 근처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때그때 충족할 수 있음. |
| 다양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공간에 다양한 물건을 배치하고, 물건 판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개척함. |
|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과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사에서 상품을 각 지점에 맞춤형으로 공급함. 규모의 경제: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함. 유연화 전략: 각 동네에 깊숙이 파고들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신속히 제공함. |
| 차별화된 매장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한 조명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심야에 드나드는 손님을 안심시켜 치안에 도움을 줌. |
| 점원의 무관심과 표준화된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제든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알맞음.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어느 곳이나 같기 때문에 점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 효율적인 소통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음. |
| 치밀한 정보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산기와 CCTV를 활용하여 손님의 구매 행태를 파악하고 영업 전략에 활용함. |

■ 편의점 성장의 이면

| | |
|--|---|
|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권장해, 지나치게 편의점 수가 많아짐. 불공정한 계약 조건 때문에 적자를 봐도 가게를 그만둘 수 없음. |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중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을 받으면서 밤을 꼬박 새워 여러 가지 힘든 업무를 수행함. |
|--|---|

모의시험 학습 활동

1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글에 나타난 소비 시설의 변천을 정리해 보자.

- 구멍가게 → 슈퍼마켓 → 대형 할인점 → 편의점
- 변화 요인: 구멍가게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공간 역할을 했으나 슈퍼마켓이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슈퍼마켓도 더 큰 규모와 가격으로 고객을 이끄는 데 성공한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그 틈새로 24시간 편의점이 동네 구석구석 들어서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편의점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다양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을 참고하여 이를 정리해 보자.

| | |
|-------|---|
| 시간 | 영업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심야에도 필요한 것들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
| 위치 |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다. |
| 관리 방식 |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맞춤형 공급이 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 디자인 | 환한 조명으로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켜 치안에 도움을 준다. |

2 현대의 도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편의점에 나타난 현대인의 소통 방식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 |
|---------|--|
| 무관심의 배려 | 점원은 손님이 출입할 때 인사만 건네고 먼저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의 소통 방식과 잘 맞아떨어진다. |
| 효율적인 소통 |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게 해 준다. |

(2) 편의점은 현대인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편의점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 편의점 주인의 입장 |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의 입장 |
|---|--|
| 본사에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권장하면서 편의점들이 지나치게 늘어나 적자를 보는 매장이 늘고 있으며, 본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장사를 계속하는 주인들도 있다 | 점원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 경우 더 곤혹스럽다. |

3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사회 현상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나 주거 환경은 훨씬 더 취약하다. 인권 침해마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지 취업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가족마저 동반할 수 없게 되어있다.

외국인 단순 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되더라도 거의 최저 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업주는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당연히 4대 보험의 법적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월급마저 떼이거나 체불 임금마저 포기하고 단속반과 숨바꼭질을 하다 강제로 출국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은 10개 국가로 총 6억 명 이상이며 국내 총생산(GDP)을 합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한다. 태국은 올해 초 7개 지역의 최저 임금을 인상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최저 임금을 44퍼센트까지 올렸다. 필리핀 역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과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 이주자에 관한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문화인은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자신이다. 이제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을 설정할 때가 아니다. 다문화야말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이다.

- 이길연, <이주 노동자에게도 최저 임금을>, 《세계일보》(2017. 7. 12.)

(나) 요즘 다문화 담론이 일종의 유행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거나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다문화 사회가 아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 즉 소수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대체로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이 10퍼센트 이상 거주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이 2퍼센트 남짓 있고, 그중 절반이 재중 교포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매우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의 다문화 담론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대응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의 민족적 구성이 바뀔 때 찾아오는 구조적 갈등이다. 아직은 이런 문제가 본격화하지 않아서 다문화 담론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양성은 좋지만 다양할수록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단일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념이 제한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종 분류나 사회적 분열과 맞바꿀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가 되리라 보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장단점에 잘 대비하는 것이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가 외국과 많이 교류하고 ‘밖으로’ 열면 되지 일부러 한국 사회 ‘안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명, <다문화 사회 담론의 함정>, 《경향신문》(2011. 3. 7.)

(1) (가)와 (나)에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 | |
|-----|--|
| (가) | 글쓴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 (나) | 글쓴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종분류와 사회적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

구멍 뚫린

[교과서 164쪽 2~4행]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귀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 예전에 동네마다 있던 소규모 점포인 구멍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장소,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교과서 164쪽 6~7행]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 구멍가게를 밀어내고 세력을 확장했던 슈퍼마켓이 이제는 위축되어 예전만큼 위세를 떨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뜻한다.

[교과서 166쪽 1~2행] 편의점은 그러한 비밀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밝은 조명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백화점의 진열장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비밀상적인 공간인데 반해서, 편의점의 밝은 조명은 이러한 비밀상성을 누구나 부담 없이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교과서 166쪽 23~24행]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 고객이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은 손님에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번거로운 인간관계를 기피하는 도시인의 습성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사람들이 어느 편의점 매장이나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여, 편의점이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요인이 된다.

[교과서 168쪽 16~18행]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 편의점의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문제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가맹점 주인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사와 맺은 계약이 가맹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169쪽 6~7행]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처럼 위안을 준다.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대 도시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이 밤하늘의 빛나는 별자리처럼 위로가 되는 공간임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뚫린 구멍

1. 구멍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예전의 구멍가게는 사람들 사이에 사귀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 나가는 소통의 공간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2.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규모의 경제'란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가맹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고, '유연화 전략'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3. 편의점의 밝은 불빛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 주는가?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부 및 외부까지 밝게 하여 소비자들을 안심시킨다.

4.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의 감각에 맞게 점원은 손님에게 간단한 인사만 건네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귀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 들고 퍼져 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1989년 한국에 첫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그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하였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퍼센트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 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1천 2백~2천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 전화 충전, 팩스, 꽃 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발권, 디브이디(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다.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쬐여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진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밀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 식품 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 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 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송출된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장에 붙어 있는 시시 티브이(CCTV)가 있는데 그 용도는 도난 방지만이 아니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때 편의점은 잘나가는 사업 항목으로서 한 달에 3백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제 살 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적자를 보는 가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천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는 일, 가게 안팎을 청소하는 일,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세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데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

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처럼 위안을 준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 김찬호,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광명고등학교 (경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하여 이와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 ②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다.
- ③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 ④ 대상의 등장 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는 한편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과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광명고등학교 (경기)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의점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여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욕망을 관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 ② 편의점의 환한 조명은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켜 치안에 도움을 준다.
- ③ 편의점의 성장으로 인해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 결과 현대 도시인들의 소통 공간이 사라졌다.
- ④ 편의점은 소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로 고객의 필요를 바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 편의점의 성장 비결이다.

- ⑤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늦은 시간에도 음식이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광명고등학교 (경기)

3.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의 '편의점'에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소통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것은?

<보기>

얼마 전 독거노인이 집에서 홀로 죽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 ①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배려가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무관심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정보를 먼저 상세하게 입수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인간관계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
- ③ 곤혹스러운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세심한 규칙에 따라 응대하다 보면 때로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④ 사람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힘의 우열이 작동하고 이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 ⑤ 타인에 대한 표준화된 응대 방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차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광명고등학교 (경기)

4.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련(關聯)되어
- ② ㉡ : 부합(符合)한다
- ③ ㉢ : 회피(回避)하는
- ④ ㉣ : 지拂(支拂)해야
- ⑤ ㉤ : 출현(出現)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1989년 한국에 첫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그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하였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퍼센트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 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1천 2백~2천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 전화 충전, 팩스, 꽃 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발권, 디비디(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편의점에 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는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것이다.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1~2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 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리고 홈 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다.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쬐여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진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밀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진열하는 데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킬지를 면밀하게 계산하여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놓고 있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불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뻗어 나가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중략>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흥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 식품 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 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례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 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송출된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장에 붙어 있는 시시 티브이(CCTV)가 있는데 그 용도는 도난 방지만이 아니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려

는 목적도 있다.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져 분석된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 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한다. 먼저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한 뒤에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들어 보며 살펴 가면서 고르는지, 유통 기한까지 확인하는지, 한 번에 평균 몇 개를 구매하는지 등을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듯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된다. 편의점이 급성장해 온 이면에는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편의점은 잘나가는 사업 항목으로서 한 달에 3백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제 살 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적자를 보는 가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그에 대해 2006년 공정 거래 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하여 몇몇 업주들과 시민 단체의 반발을 샀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천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는 일, 가게 안팎을 청소하는 일,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제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④수행한다.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데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손님, 돈이 모자라는데 봐달라며 때를 쓰는 손님. 슈퍼마켓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커피를 타 달라는 손님 등을 만나면 지극히 곤혹스럽다.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처럼 위안을 준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

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㉔구상하고 있을까.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5. 윗글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질문 만들기 과제를 수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글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두 개 고르면?

질문 만들기

Q. 한국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은? ①
 Q. 편의점 주인들과 본사와의 갈등 원인은? ②
 Q.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과의 차별화 전략은? ③
 Q. 편의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손님의 대응 방안은?... ④
 Q. 편의점 점원의 표준화된 고객 접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⑤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의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 ③ 편의점 운영 시스템의 양면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④ 편의점의 어원을 설명하며 도시인들과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⑤ 현대 도시 사람들이 보이는 소비 문화의 특징을 편의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7. ㉔ ~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㉔ : 그는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집을 말끔하게 신장하였다.
- ② ㉔ :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였다.
- ③ ㉔ : 그는 온몸을 곧게 뻗으며 수직으로 입수하였다.
- ④ ㉔ : 많은 경제인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였다.
- ⑤ ㉔ : 우리 회사는 이번에 들여온 청바지 하자품을 구상하였다.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은 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헬스앤뷰티 스토어가 편의점 안에 등지를 틀었다. 두 가지 매장을 한번에 체험할 수 있어 편리함을 배로 높인 공간이다. 혼합형 매장을 찾은 고객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바로 옆 헬스앤뷰티 코너에서 수정 화장을 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에 최근 헬스앤뷰티(H&B) 스토어 B업체가 ‘숍인숍’ 형태로 입점했다. B스토어는 편의점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운영되다 보니 브랜드 최초로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혼합형 공간은 편의점과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공통 고객층인 20대 소비자가 밀집한 대학가 근처에 자리 잡았다.

이곳에 두 매장을 절반 가량씩 나눠준다. 15평짜리 공간에 기초제품, 색조제품, 여성용품 등 총 1,700여종의 제품을 갖췄다. 야간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높은 편이다. 구매 제품의 경우 스킨케어와 마스크팩, 트러블패치 등 기초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색 실험은 B업체가 처음 시도했다. 지난 2017년 C슈퍼마켓 B업체를 결합한 매장을 선보이며 슈퍼마켓의 주 고객층인 중장년 여성 고객과 B스토어에서 쇼핑을 즐기는 젊은 여성 고객을 모두 끌어모았다. 혼합형 매장은 다양한 쇼핑 수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헬스앤뷰티 스토어를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것이다.

[○○일보 2019-11-24]

(나) 편의점 업계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전략을 앞세워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들)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 혼밥 문화의 보편화. 물가 상승 등이 편의점 도시락 시장의 급성장에 기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도시락 판매율은 대학가(70%)와 주택가(55%), 오피스 상권(9%)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도시락의 주 소비층이 자취생이나 직장인이란 얘기가.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 요인은 가성비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외식비 평균 지출액은 점심 6682원, 저녁 9604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평균 가격이 3000~4000원대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간 편의점 도시락은 주로 불고기, 돈가스, 햄 등 간단한 육류 반찬이 주류였지만, 최근엔 생선이나 쭈꾸미 등을 활용한 제품도 출시됐다. 시장이 커지면서 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 2019-11-24]

① (가)를 보면 B스토어는 24시간 영업이라는 편의점의 장점을 함께 누리고 있어.

- ② (가)를 보면 A편의점은 20대 젊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을 다양화하는 유연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어.
- ③ (가)를 보면 A편의점과 B스토어는 공간을 절반 가량 나누어 사용하지만, 전체 취급하는 제품은 두 배 가량 늘었겠어.
- ④ (나)를 보면 편의점 도시락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 대학가와 주택가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 ⑤ (나)를 보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에서 도시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9. 편의점 매장 디자인의 특징 세 가지를 쓰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디자인의 특징은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 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 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례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_이은희

■ 핵심 정리

| | |
|----|---|
| 갈래 | 설명문 |
| 성격 | 설명적, 체계적 |
| 제재 | 진화론 |
| 주제 | 생태계의 진화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닌 공존과 화합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
| 특징 | ① ‘진화론’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변이의 다양성’과 ‘공생’의 관점을 제시함. ② 다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화를 소개하여 논지를 강화함. ③ 유추, 예시, 대조, 인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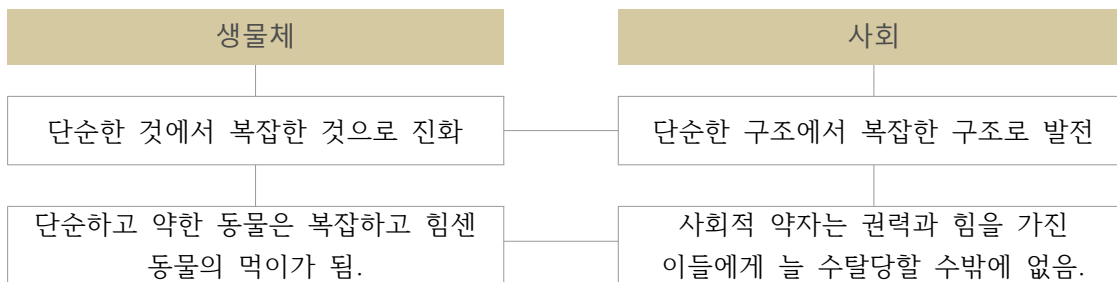
■ 글의 구성

| | |
|----|---------------------------|
| 처음 |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반박 |
| 중간 |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 |
| 끝 | 다윈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공존의 가치 |

■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반박

| | |
|------------|--|
| 진화론에 대한 오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화는 우열 관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진화’를 통해 고등한 존재로 발전함. 진화론’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뒷받침함. |
| 글쓴이의 반박 | 생물체의 진화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일어나는 우연한 결과임. |

■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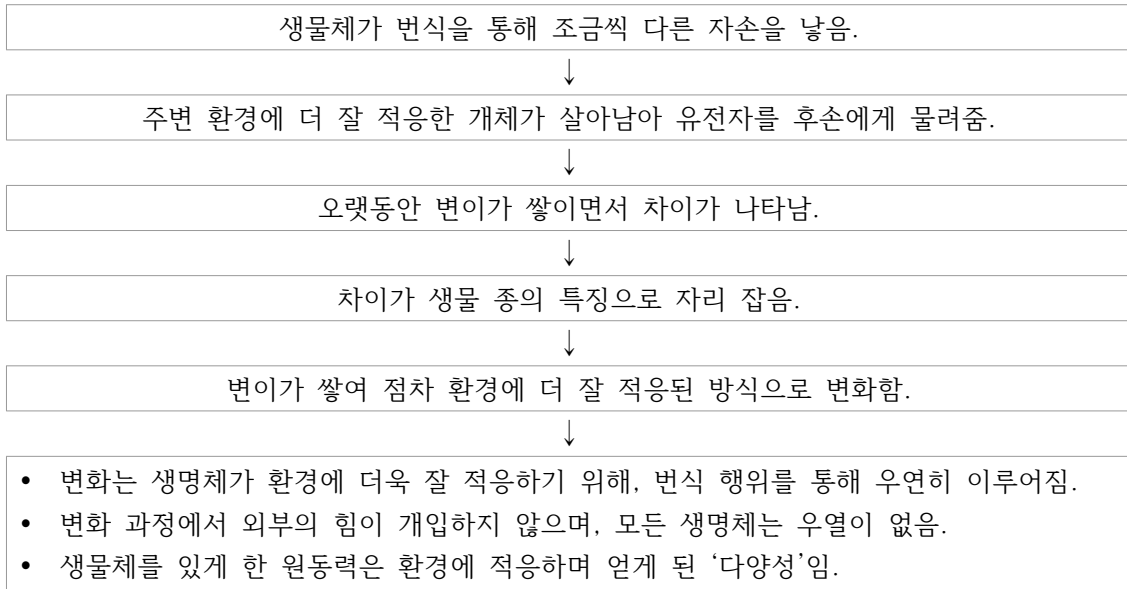


■ 다윈의 갈라파고스 핀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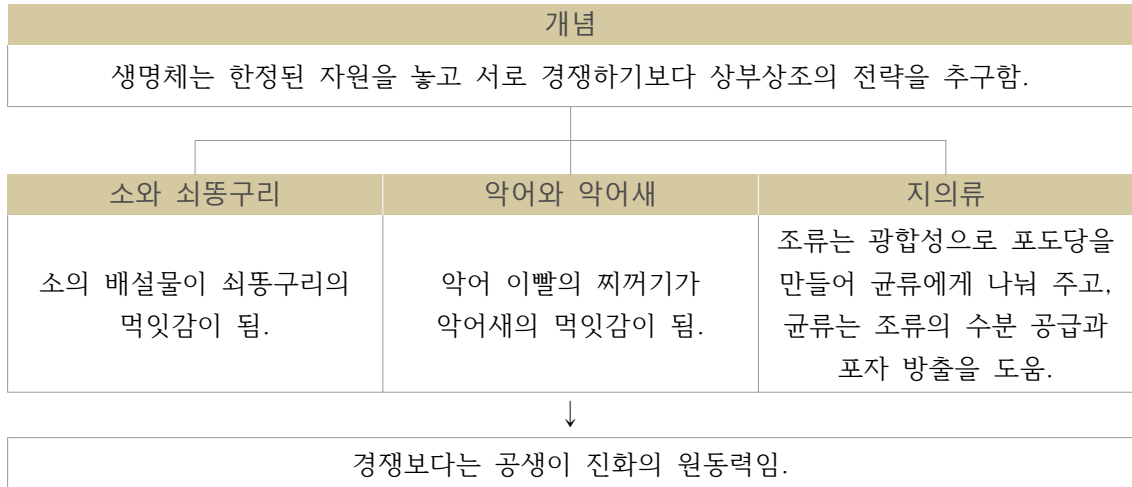
- 13종의 핀치가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다르고, 그 부리의 모양은 먹이와 관련이 있음.
- 하나의 종이었던 핀치가 자신의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종으로 세분화된 것임.
→ 진화에 있어 가장 큰 무기는 경쟁이 아닌 다양성의 증가임.

IV-3.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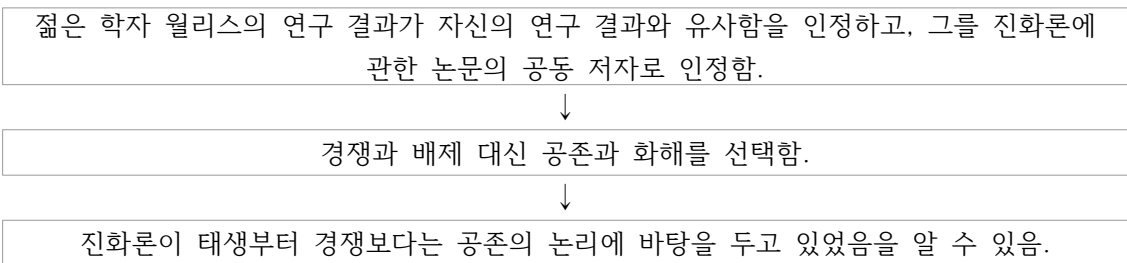
■ 다윈이 주목한 '변이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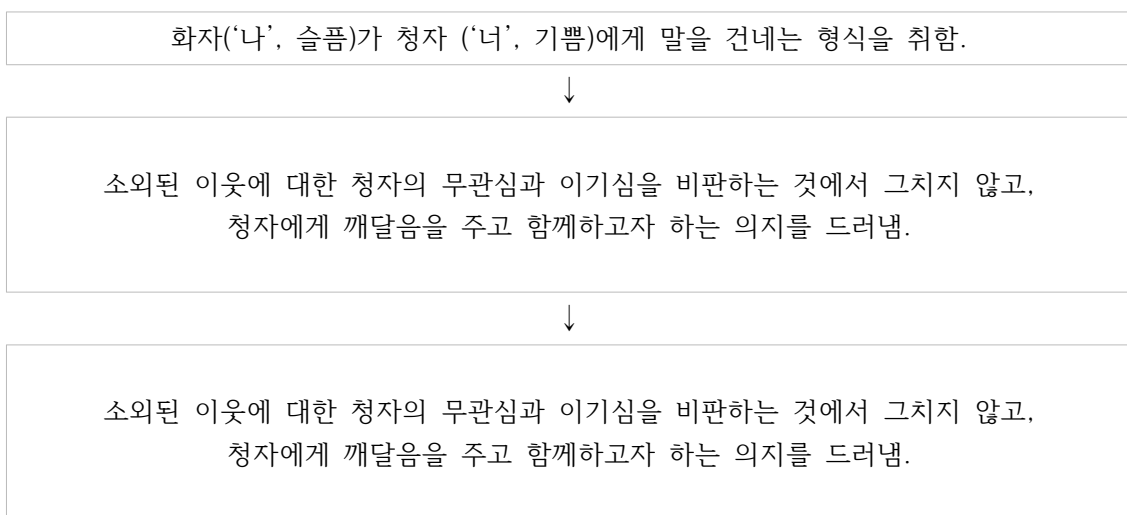
■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



■ 공생을 실천한 다윈의 일화



■ 공생을 실천한 다윈의 일화



모의시험 학습 활동

1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은 이 글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다. 올바른 설명을 찾아 연결해 보자.

- 진화 - 생물이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 가는 현상.
- 공생 -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주며 함께 사는 일.
- 변이 - 같은 종에서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

(2)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과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
단순하고 약한 동물이 복잡하고 힘이 센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

허버트 스펜서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부상조 전략) 을 /를 추구한다.
많은 생물 종들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는다.

린 마굴리스

(3) 다음은 본문에 소개된 공생의 사례이다. 각 생물체가 어떻게 공생하는지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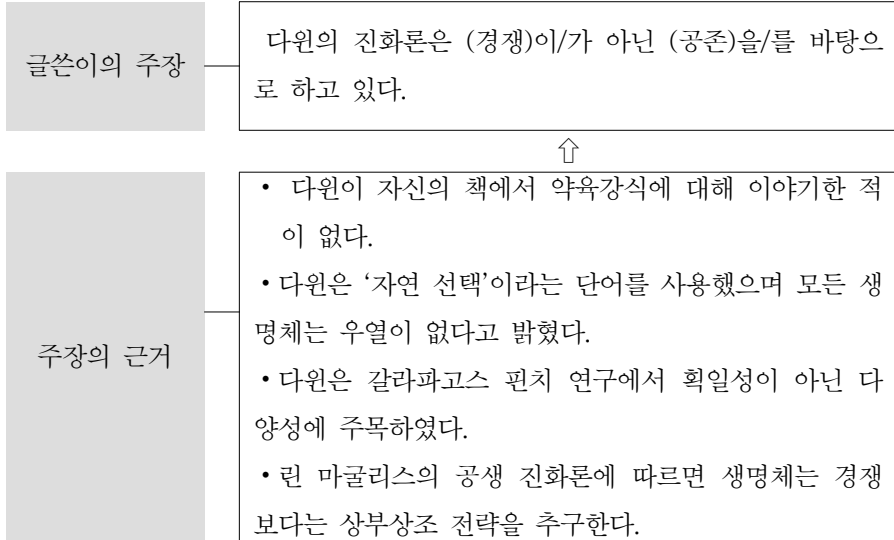
| 소와 쇠똥구리 | 악어와 악어새 | 지의류 |
|-----------------------|------------------------------|--|
| 소의 배설물이 쇠똥구리의 먹잇감이 된다 | 악어의 이빨에 낀 찌꺼기가 악어새의 먹잇감이 된다. |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하여 균류에게 나눠 주고, 균류는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하거나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는다. |

2 글쓰기가 제시한 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해 보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글에서 글쓰기가 비판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와/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이다.
- 진화에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과 (우열 관계)이/가 있다.
- 진화가 (발전)와/과 (개선)을/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2) 이 글에서 글쓴이가 진화론에 대한 통념을 깨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찾아서 정리하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해 보자.



주요 쟁점

[교과서 176쪽 5~6행] 많은 사람들이 진화에는 우열 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 진화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통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교과서 177쪽 5행~10행]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스펜서가 사회와 생물체의 유사성을 토대로 조건과 결과를 연결시켜 사회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도입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177쪽 10~14행]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 유추와 예시를 통해 스펜서가 ‘사회 진화론’에서 주장한 핵심 개념인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178쪽 2~11행]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다윈이 쓴 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다윈이 자연 선택의 확일성보다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서 제기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교과서 178쪽 17~22행]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 견과류를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 구체적 사례를 들어 핀치새의 먹이와 부리 모양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먹이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진화된 부리의 형태를 ‘주삿바늘’과 ‘지렛대’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179쪽 8~12행] 소의 배설물이 쇠똥구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Ⅳ-3.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 자연계에서의 '다양성'의 예를 들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진화론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부정적하며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의 원리와 공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교과서 181쪽 20~23행]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 세상은 이제야깨닫게 된 것이다.

→ 글쓴이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며 궁극적으로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답변 요약

1. 글쓴이가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고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

진화론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뒷받침해 주는 논리로 왜곡되어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진화론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2. 다윈은 생명체를 있게 한 원동력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다윈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을 생명체를 있게 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3.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였으나,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으면서 진화하였다. 먹잇감에 따라 부리의 모양도 저마다 다르게 진화하였기때문에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4. 윌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연구자 윌리스의 연구 결과가 22년 동안이나 연구한 자신의 연구 결과와 거의같았기 때문이다.

백지 노트

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백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써 보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우열 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고 여긴다.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꼭 정 개체만을 선별해 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 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 학자였던 ○스펜서다.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었다.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꿀벌과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며, 사회성 곤충이 이루는 집단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한다.)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 냈다.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

애초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어째서 다윈이 말한 것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 다윈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에 관해 이야기한 바 없다.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종의 기원> 초기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의 기원> 제5판을 찍을 때쯤에야 다윈은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채택했을 뿐이다. 이전에 다윈이 진화론에서 사용한 주요 단어는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었다.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특히,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 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용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이 글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 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윈이 확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836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해안에서 1,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 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 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13

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중략)

다양한 생물 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치수에 비해 자원의 가치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라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지의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 이다.

1836년 2월, 5년간의 비글호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윈은 무려 22년이나 연구를 지속하였지만 좀처럼 이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다. 1858년,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 지역에서 생물을 연구하던 젊은 연구자 윌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윌리스는 다윈이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윌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윌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 발표를 20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과 거의 같은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다윈은 여러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승자만을 기록한다. 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학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 하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수집된 자료를 비롯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윌리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윌리스를 학계에서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다윈은 윌리스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윌리스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여 진화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인정했다. 후세 사람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 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다윈이 몇 년간의 연구를 해 왔던 윌리스를 동등한 자격의 연구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할 뿐, 윌리스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역지로 주장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만약 다윈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윌리스를 짓밟으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분명 역사는 다윈의 이름을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로챈 파렴치한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윈은 경쟁과 배제 대신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곳적부터 체득하고 겪어 왔던 방식의 가치를, 다윈이 윌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윈의 일화를 제시하여 다윈이 긍정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연구를 근거로 삼아 주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진화론에 대한 통념이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에 비유하여 핀치의 부리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물체는 변이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생존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
- ②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되므로, 진화는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
- ③ 다윈의 이론에 사용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는 다윈과 스펜서의 연구 방향이 유사했음을 보여준다.
- ④ 다윈은 자신과 윌리스의 연구 결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며, 삶에서도 공생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 ⑤ 변이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은 상부상조의 논리로 인간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은 ㉠과 달리 많은 생물 종들이 조금 더 우수한 형질이 살아남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④ ㉠과 ㉡은 모두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미쳤다.
- ⑤ ㉠과 ㉡은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나)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우열 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고 여긴다.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을 선별해 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 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스펜서다.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었다.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꿀벌과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며, 사회성 곤충이 이루는 집단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한다.)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 냈다.

(라) 애초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어째서 다윈이 말한 것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 다윈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에 관해 이야기한 바 없다.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종의 기원> 초기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의 기원> 제5판을 찍을 때쯤에야 다윈은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채택했을 뿐이다. 이전에 다윈이 진화론에서 사용한 주요 단어는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었다.

(마)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㉞번 이의 ‘다양성’이었다. 특히,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 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 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바)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이 글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 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충북대학교사대부고 (충북)

4.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일반적 통념을 제시하였다.

- ② (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에 관해 오해하게 된 원인을 제시하였다.
- ③ (다)에서는 특정한 용어와 연관된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 ④ (라)에서는 다윈이 스펜서보다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음을 입증하였다.
- ⑤ (가)에서는 글쓴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 ~ (라)에서 근거를 들어 답하였다.

충북대학교사대부고 (충북)

5. (가) ~ (바)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 묶은 것은?

- ㉠ (나)의 ㉠ ~ ㉣에는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나타난다.
- ㉡ 진화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종의 기원> 초판을 쓸 때 다윈은 스펜서의 ‘적자생존’을 차용하였다.
- ㉣ 다윈은 생명체의 변화 과정에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 ㉤ 스펜서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약육강식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였다.
- ㉥ (라) ~ (바)에서는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통념을 반박하는 설명 방식을 사용하였다.
- ㉦ (마)의 ㉞가 의미하는 것은 변이는 생물체가 다양한 환경에 접할수록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충북대학교사대부고 (충북)

6.

- (1) 스펜서가 사용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를 아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다)의 내용을 근거로 쓸 것.
-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약자와 강자의 관계를 서술할 것.

- (2)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사는 핀치 연구를 통해 내렸을 결론을 아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사)의 내용을 근거로 쓸 것.
- ‘통합’, ‘분화’ 두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생물은 ~ 진화한다.” 형식의 한 문장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우열 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고 여긴다.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을 선별해 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 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 학자였던 스펜서다.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었다.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 냈다.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 (중략)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특히,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 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중략)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중략)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 넣고 벌레를 찌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중략)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중략)

윌리스 다윈이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윌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윌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 발표를 20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과 거의 같은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다윈은 여러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승자만을 기록한다. 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학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 하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수집된 자료를 비롯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윌리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윌리스를 학계에서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다윈은 윌리스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윌리스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여 진화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인정했다. 후세 사람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략)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곳적부터 체득하고 겪어 왔던 방식의 가치를, 다윈이 윌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 이은희,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중흥고등학교 (경기)

7.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다윈의 '자연 선택'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진화의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ㄴ. '공생 진화론'은 약육강식으로 이해되는 생태계에 대한 통념을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다.

ㄷ. 생물체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변이한다는 다윈의 주장은 생물체의 우월한 유전자가 진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ㄹ. 갈라파고스의 핀치는 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가장 능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발전과 개선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다양한 부리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중흥고등학교 (경기)

8. 밑글과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회 진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과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와 월터 배럿 등에 의해 주장되어 널리 유행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자가 줄어들고 그들의 문화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데 반해, 강자는 강력해지고 약자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진화론자들은 인간 사회의 생활이란 생존경쟁이라고 생각했고, 그 투쟁은 스펜서가 제창한 적자생존(適者生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다.

흔히 사회 진화론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오해되고 있지만,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 진화론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회 정역학(Social Statics)>은 1851년에 발간되었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은 1859년에 발간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만, 스펜서가 1864년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후, 다윈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 1869년 <종의 기원> 제5판에 이 용어를 쓴 것으로 보면, 각각 논지는 달랐으나 유사한 개념과 용어를 서로 받아들여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것을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여러 종이 진화해 나간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생물 개체 자체에 고등한 특징과 열등한 특징이 있어 고등한 것이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다고 보는 사회 진화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개체 자체에 진화의 단계와 우열이 있다고 보는 사회 진화론은 이후 개인과 사회의 타고난 자질이 있어 개인과 집단, 민족 간에 우연이 있다고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① 사회 진화론은 인종주의, 제국주의 등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배경이 될 수 있겠어.
- ② 다윈의 진화론과 달리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개인의 타고난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 ③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모두 대상을 변화시키는 외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 ④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확장되었다는 밑글의 내용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어.
- ⑤ '적자생존(適者生存)'은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모두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지만 '적자'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IV-1.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1.⑤ 2.③ 3.④ 4.① 5.① 6.② 7.① 8.④ 9.② 10.⑤
 11.① 12.⑤ 13.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타자'에 대한 철학적 과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하며, 글쓴이는 인내하는 태도가 로봇과의 공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4.③⑤ 15.⑤ 16.④ 17.⑤ 18.② 19.③
 20. ㉠ 과거에는 로봇을 '인공노예'로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등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 ㉡ 인공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21.② 22.③ 23.③ 24.단순 노동자를 대체했던 과거 로봇과는 달리, 정서적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25.③ 26.④ 27.(1) 인간 (2) 로봇 28.①⑤ 29.④ 30.③ 31.④ 32.② 33.③ 34.④ 35.③ 36.③ 37.③ 38.오늘날 로봇의 역할은 '동반자'로 확대되었다. 새로운 타자인 인공 생명과 인간의 관계는 '삶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39.③ 40.③ 41.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닌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공 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42.⑤ 43.③ 44.① 45.(1) 로보타 (2) 강제 노동 (3)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46.② 47.⑤ 48.③ 49.① 50.[A]는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다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고, [B]는 로봇이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51.⑤ 52.⑤ 53.② 54.② 55.① 56.④ 57.④ 58.⑤ 59.⑤ 60.① 61.③ 62. 인간은 로봇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IV-1.<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1.③ 2.④ 3.③ 4.③ 5.④ 6.④ 7.④ 8.육체노동을 하면서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 9.① 10.④ 11.농촌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곱게 다듬어 그리는 화가들의 태도가 농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2.①② 13. 글쓴이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통해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4.① 15.② 16.⑤ 17.① 18.① 19.② 20.② 21.예술이란, 비록 투박하더라도 삶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22.⑤ 23.③ 24.② 25.④ 26.⑤ 27.③ 28.④ 29.① 30.② 31.

⑤ 32.② 33.② 34.⑤ 35.④ 36.⑤ 37.① 38.③ 39.① 40.③ 41.① 42.⑤ 43.④ 44. [A]: 정직하고 진실된 삶이 있는 세상 [B] 도시인들의 삶 45.④ 46.④ 47.② 48.④ 49.① 50.④ 51.⑤ 52.① 53.① 54.⑤ 55.② 56.⑤ 57.② 58.① 59.④ 60.④ 61.(1)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혼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한다. (2)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IV-2.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1.④ 2.① 3.② 4.① 5.② 6.② 7.㉠ 감시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하게 되며, 감시자가 누구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다. ㉡ 감시를 실시하는 동기와 상관없이 수감자가 감시를 내면화하게 된다. 8.⑤ 9.① 10.② 11.④ 12.① 13.㉠은 감시자가 수감자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시하며, ㉡은 일반인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감시한다. 14.⑤ 15.④ 16.② 17.④ 18.⑤ 19.⑤ 20.① 21.③ 22.② 23.④ 24.(1)감시를 실시하는 동기와 상관없이 수감자가 감시를 내면화하게 된다. (2)일방 감시 감옥의 원리는 시민을 감시, 억압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5.② 26.③ 27.④ 28.(1) 개개인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 (2) 개개인이 분리되면서 집단의 질서가 유지된다. (3) 권력자 (4) 일반인 29.① 30.② 31.⑤ 32.④ 33.일방 감시 감옥의 원리는 시민을 감시, 억압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34.①⑤ 35.② 36.④ 37.② 38.② 39.③ 40.③ 41.② 42.④ 43.④ 44.④ 45.② 46.⑤ 47.② 48.(나)에서는 비유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에서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49.⑤ 50.③ 51.감시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하게 되며, 감시자가 누구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52.④ 53.⑤ 54.시놉티콘, 시놉티콘은 수감자가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소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패놉티콘과는 달리 사회 누구나 감시를 하는 쌍방향 감시가 가능하다. 55.③ 56.⑤ 57.② 58.① 59.④ 60.⑤ 61.③ 62.④ 63.수감자는 수감자이며 동시에 감시자가 된다.

IV-2.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1.③ 2.③ 3.① 4.⑤ 5.④⑤ 6.① 7.② 8.⑤ 9.환한 조명, 투명 유리, 볼록 거울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10.③ 11.② 12.③ 13. ① 14.① 15.⑤ 16.② 17.⑤ 18.⑤ 19.① 20.④ 21.④ 22.⑤ 23.① 24.④ 25.④ 26.② 27.⑤ 28.① 29.① 30.③ 31.⑤ 32.① 33.⑤ 34.⑤ 35.③ 36.④ 37.④ 38.⑤ 39.① 40.② 41.① 42.⑤ 43.③ 44.④ 45.④ 46.② 47.⑤ 48.① 49.③ 50.㉠ 그리고 ㉡ 그러나 ㉢ 그런데 51.인종 분류나 사회적 분열

IV-3.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1.④ 2.① 3.② .④ 5.① 6.(1)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 센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는 권력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 생물은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어 진화한다. 7.④ 8.③ 9.④ 10.④ 11.① 12.③ 13.② 14.② 15.④ 16.④ 17.④ 18.⑤ 19.④ 20.② 21.① 22.③ 23.㉠ 단순한 것 ㉡ 복잡한 것 ㉢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 당할 수 밖에 없다. ㉣ 경쟁 ㉤ 상부상조 전략 ㉥ 공존 24.④ 25.② 26.③ 27.① 28.⑤ 29.③ 30.③ 31.② 32.② 33.③ 34.(1)린 마굴리스 (2)공생 진화론을 주장했다. 공생 진화론은 생명체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이론이다. 35.(1)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진화에는 우열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 진화는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이다 (2) 이러한 인식의 원인은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의 개념과 다윈의 진화론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3)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자연 선택과 변이의 다양성이다. 36.(1) 첫 번째 내용 전개 방식은 유추이다. 왜냐하면 사회와 생물체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생물이 진화하듯 사회도 진화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내용 전개 방식은 예시이다. 왜냐하면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와 같이 예를 제시해 약육강식의 논리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37.⑤ 38.② 39.도도새가 살았던 환경에는 조류 이외의 포식자가 없어서 하늘을 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것이구나. 40.② 41.⑤ 42.⑤ 43.⑤ 44.② 45.⑤ 46.⑤ 47.1)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출산 후 일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저출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뒤에 이어질 수 있다. 48.② 49.④ 50.④ 51.③ 52.④ 53.⑤ 54.④ 55.오해1: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란 용어는 스펜서가 처음 쓴 말이다. 오해2: 형질을 지닌 생물 종이 남는 것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며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아니다.

IV-3. '우리'를 위한 기술, 적정 기술

1.② 2.④ 3.④ .(1) 최소의 비용으로,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여 현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 (2) 한번 구매 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검안사 없이 초점을 조절할 수 있다 5.① 6.③ 7.④ 8.⑤ 9.③ 10.② 11.② 12.③ 13.① 14.③ 15.② 16.⑤ 17.(1) 향아리 냉장고 (2)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고 조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려다 보면 선진국의 기술에 비해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⑤ 19.② 20.⑤ 21.② 22.⑤ 23.⑤ 24.② 25.② 26.③ 27.① 28.③ 29.③ 30.① 31.④ 32.③ 33.④ 34.④ 35.(1) 빈곤층도 기술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 기술의 취지이다. (2) 값싸고, 검안사 없이도 쉽게 초점이 조절되고, 한 번 사서 평생을 쓸 수 있어야 한다. 36.③ 37.⑤

V-1. 옛사람의 독서 일기

1.① 2.⑤ 3.① .④ 5.㉠ 주제통합적 읽기,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서평이나 비평문 쓰기 활동,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6.② 7.③ 8.③ 9.② 10.③ 11.⑤ 12.아립니다. 염려하옵니다. 13.③ 14.㉠ 글쓰기 습관 ㉡ 독서 문화 ㉢ 객관적 15.⑤

V-2.외투

1.⑤ 2.③ 3.① 4.⑤ 5.④ 6.② 7.④ 8.① 9.㉠ 후두염 ㉡ 소나무관 10.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분풀이를 대신하며, 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11.② 12. (1)주인공 입장: 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 / 물질적, 정신적 자산 (2) 사회적 관점: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수단, 인간

의 본성과 개성을 왜곡하는 봉건적 신분 질서의 상징 13.㉓ 14.㉓ 15.㉑ 16.유사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목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대해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선굴자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람을 외적인 것이 아닌 인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7.㉑ 18.소시민, 사회의 계층적 위계 질서 속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심리적으로 극도로 제약된 인물 유형 19.관직 유지나 진급을 위해 상급자에게 아첨하며 부정부패에 동참하는 관료 사회의 행태 20. ㉑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㉒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인지 아냐?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 끝 -